

# 주요산업별 최근 동향과 그 展望

李 揆 哲  
〈中小企協中央會 支援課長〉

## 一. 概 況

「KDB 산업경제 32호」(한국산업은행간)의 자료를 토대로 주요산업별 최근 동향을 살피고 경제일간지, 산업연구원의 자료 및 지난 8월 31일 발표한 통상산업부의 「최근의 산업동향과 하반기 전망」을 중심으로 각 산업별 하반기를 전망하였다.

0. 산업연구원의 자료를 통해 본 우리 경제는 중화확업중의 호황지속과 작년도부터 이어진 경기확장세에 힘입어 활기를 보인 대부분의 업종들이 금년초의 엔고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마저 호조를 보여 이러한 경기확장세가 금년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부문별 산업생산을 보면 반도체, 컴퓨터 등 전자·전기제품 및 기계장비 등의 수출수요증가와 내수호조로 이 부문의 생산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 났으며 다소 수축하였던 경공업생산도 인쇄·출판 및 음식료품의 수요확대로 2/4분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0. 수출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의 호조세가 금년 상반기의 엔고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큰 이변이 없는 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왜냐하면 중화학공업제품이 전년동기대비 4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경공업제품의 수출도 전년동기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못하였어도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0. 그러나 설비투자를 위한 자본재 및 경기호

황에 따른 원자재 및 소비재수요증대로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 무역수지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수지악화를 방지하고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자본재산업육성시책을 수립한 바 있다. 한편 기업에서는 장기투자의 일환으로 자본재생산에 노력하고 단기대책으로는 가급적 외국산보다는 국산자본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에너지 및 원자재사용을 절감함으로써 원자재수입을 억제하고 국민전체적으로도 불요불급한 소비재수입을 지양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만 하반기 경제성장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다.

## 二. 주요산업별 최근동향

### 〈자동차〉

자동차산업은 그간 현대자동차의 휴업사태와 내수부진 등으로 생산과 판매가 다소 저조하였고, 상용차의 수출호조만을 제외하면 수출도 다소 감소하였다. 작년 한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해외진출이 크게 늘어나 자동차관련 부품업체도 해외이전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임금이 낮은 현지인력의 활용이 가능하고 또한 통상차찰의 완화측면에서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 〈조선〉

최근 중국 및 동남아지역으로의 해외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지역을 연결하는 중소형

선박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해 중소형 사위주의 신조선수주가 활기를 띠고 있다.

또한 엔화강세에 따른 경쟁력우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조선시장의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는 국내 조선업체들은 그간 일본 조선업체를 이용했던 중국을 상대로 활발한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어 성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금년들어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의 대형조선업체들이 광석·석탄운반선을 수주한바 있고 이 밖에 한라중공업, 대동조선 등이 대중국 진출에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국내 조선업체의 대중국 공략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다.

#### 〈전자〉

국내 전자산업은 전자부품을 비롯하여 가정용 전자, 산업용전자등 모든 부문에서 호조세를 보이고있어 금년상반기의 수출실적이 49억달러를 넘고있다.

가정용전자는 영상기기, 음향기기 및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산업용전자는 통신기기, 전자응용기기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전자부품의 경우 세계 반도체시장의 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요증가에 힘입어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 〈일반기계〉

일반기계공업은 제조업의 경기호조로 기계류 수주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생산량도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선진국 및 동남아시아장으로 부터의 수출확대가 이어져 전반적인 생산활동의 호황국면을 맞고 있다.

자동차,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력업종에서의 설비투자와 건설등 비제조업부문에서의 발주 증가 등으로 기계류 수주가 늘어나 전반적인 생산가동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수출의 경우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시장 및 동남아시아에서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운반하역장비, 냉동공조기계, 공작기계등의 수출이 금년 상반기에 32억9천만달러를 넘어서는 등 작년동기에 비하여 거의 배에 가까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기계류의 수입도 금년 상반기에 98억6천만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 신장율은 3/4분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 〈철강〉

철강산업도 국내수요증가와 엔고 등의 영향으로 철강재 수출이 작년에 비하여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다만 그간 철강재 수출의 대상국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뀌고 수입은 오히려 중국으로 그 대상을 바꾸어 철강재무역구조가 변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국내 철강재수요업체가 최근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철강재 국내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비교적 값이 싼 저가의 중국산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업체의 사정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철강재의 대일무역에 있어서는 과거의 무역적자가 크게 줄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보철강회사의 핫코일 생산참여로 앞으로의 철강산업은 경쟁이 더욱 개방적이고 치열해 질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 〈석유화학〉

석유화학분야는 그간 업계의 정기보수관계로 전체 수급규모가 다소 위축되었으나 금년동기에 비하여 생산 및 수출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활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은 일부 품목의 내수충당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금년동기에 비해 다소 신장율이 떨어졌으나 석유화학부문에서의 최대 수출비중을 점하는 합성수지의 대동남아 수출호조로 합성고무 및 합성(合纖)원료 등의 금년도 상반기수출이 146만톤으로서 전년동기대비 18.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유공, 삼성종합화학 등의 업체들이 PX, SM 생산을 위해 생산설비·시설에 확충을 기하고 있어 이러한 생산설비가 완공되면 동제품의 안정적 조달과 함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

등 무역수지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비금속광물〉

2/4분기중 시멘트산업은 전반적인 경기호조로 내수 및 생산이 크게 증가하여 클링커를 포함한 시멘트수출은 상대적으로 전년동기보다 줄고 수입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유리산업도 자동차 등 관련수요산업의 경기확산으로 내수와 생산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시멘트업계는 폐기물을 이용한 시멘트제작을 연구·개발중에 있어 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멘트의 수요가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에 대비하여 일부 시멘트업체는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섬유·의복〉

2/4분기중 섬유산업은 수출증가세가 회복되었음에도 원면, 화섬원료의 구독난과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채산성악화로 사·직물 생산업계의 가동율이 크게 떨어져 전반적으로 생산활동도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통상산업부는 금년 6월말로 만료 예정이었던 직물산업합리화업종 지정기간을 1997년말 까지 2년 6개월만 연장하고 그 내용으로는 단지 직기등록제만을 실시하는 등 종전의 합리화조치보다는 규모를 크게 축소하고 오는 1997년말까지 직물제조업의 신규업체 진출도 금지시켜 직물업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도

〈표 1.〉 업종별 하반기 및 연간전망

〈내수·수출〉

구 분	단 위	내 수			수 출		
		상 반	하 반	연 간	상 반	하 반	연 간
자 동 차	천대	744 (△2.6)	856 (8.1)	1,600 (2.8)	524 (54.5)	476 (19.3)	1,000 (35.5)
조 선	천 G/T	-	-	-	2,254 (1.3)	3,543 (21.0)	5,797 (12.5)
석 유 화 학	천톤	3,534 (6.0)	3,832 (7.2)	7,366 (6.6)	1,466 (18.3)	1,518 (20.0)	2,984 (19.1)
철 강	천톤	17,520 (7.2)	18,480 (16.6)	36,000 (118)	4,864 (△2.8)	4,746 (△4.5)	9,610 (△3.6)
일 반 기 계	백만달러	24,161 (26.5)	25,983 (24.9)	50,144 (25.7)	3,291 (44.5)	3,837 (33.5)	7,128 (38.4)
반 도 체	백만 "	5,000 (47.1)	5,500 (34.1)	10,500 (40.0)	9,000 (63.6)	10,500 (40.0)	19,500 (50.0)
가 전	백만 "	510 (6.3)	566 (1.1)	1,076 (3.5)	1,478 (4.1)	1,822 (8.3)	3,300 (6.4)
산업용전자	10억원	5,516 (37.4)	6,985 (26.5)	12,501 (31.1)	-	-	-
섬유·의복	백만달러	-	-	-	3,421 (30.5)	3,594 (13.0)	7,015 (20.9)
	백만 "	9,569 (3.7)	8,977 (4.3)	18,546 (4.0)	9,238 (12.2)	9,252 (2.4)	18,490 (7.1)
신 발	백만족	66.0 (△5.0)	66.0 (△0.5)	132.0 (△0.5)	51.2 (△24.0)	45.6 (△21.6)	96.8 (△22.9)
	백만달러	-	-	-	782 (△16.9)	700 (△16.6)	1,482 (△16.7)

〈표 2〉

〈생산·수입〉

구 분	단 위	생 산			수 입		
		상 반	하 반	연 간	상 반	하 반	연 간
자 동 차	천대	1,268 (11.8)	1,332 (13.2)	2,600 (12.5)	3.6 (114.9)	4.4 (63.0)	8.0 (81.8)
조 선	천 G/T	2,254 (0.9)	3,546 (20.7)	5,800 (12.2)	-	-	-
석 유 화 학	천톤	4,406 (10.2)	4,787 (12.7)	9,193 (11.5)	594 (2.9)	563 (△4.9)	1,157 (△1.0)
철 강	천톤	18,042 (8.1)	18,658 (9.4)	36,700 (8.8)	4,342 (△6.8)	4,568 (21.6)	8,910 (5.9)
일 반 기 계	백만달러	17,592 (18.5)	18,351 (18.0)	35,943 (20.9)	9,860 (51.1)	11,469 (41.2)	21,329 (45.7)
반 도 체	백만 "	9,700 (61.7)	11,300 (40.5)	21,000 (48.9)	4,300 (48.3)	4,700 (34.3)	9,000 (40.6)
가 전	백만 "	1,938 (3.2)	2,340 (5.8)	4,278 (4.7)	50 (127.0)	48 (50.0)	98 (81.5)
산업용전자	10억원	4,402 (29.4)	5,378 (18.1)	9,780 (23.0)	-	-	-
	백만달러	-	-	-	4,873 (43.9)	5,690 (29.7)	10,563 (35.9)
섬유·의복	백만 "	18,173 (4.9)	17,446 (0.1)	35,619 (2.5)	2,493 (33.3)	2,589 (15.6)	5,082 (23.7)
신 발	백만족	106.1 (△16.1)	99.8 (△14.6)	206.3 (△15.4)	10.7 (57.4)	11.8 (55.3)	22.5 (56.3)

※① ( )는 증감률 ② 석유화학은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섬원료 포함  
 ③ 철강은 조강기준 ④ 가전은 CTV 및 VTR 기준.

록 하고 있다.

〈신발〉

2/4분기중 신발산업은 수출이 전년동기에 비하여 감소한 반면 수입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신발산업의 불황속에서 태광실업, 삼양통상, 대산교역 등 굴지의 신발업체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이전·가동하는 한편 국내공장의 생산라인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어 국내신발산업의 공동화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三. 산업별 하반기 전망

각 신문지상 보도와 산업연구원의 실물경제 최근호의 산업별경기전망 및 통상산업부가 발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하반기 산업별경기를 전망해 본다.

〈자동차〉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의 자동차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백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수는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2.6% 감

소하였음에도 하반기에는 신차종에 대한 수요증대, Jeep 수요의 회복 등으로 8.1%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통상산업부자료에 따른 전망이다. 자동차수출에 있어서도 통상산업부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이나 연간수출은 전년 대비 35.5% 증가하여 결국 1백만대 수출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전자>

산업연구원자료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 전자부품산업은 일본엔고, memory 반도체의 세계적인 공급부족상태의 지속, TFT-LCD의 생산本格가동, 가전 CATV 관련부품의 지속적인 내진 확대 등으로 구조고도화가 진전되면서 높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은 엔고에 힘입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44%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전자부품의 경우도 반도체의 수출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CPT, CDT, PCB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에 있어서도 컴퓨터의 지속적인 보급확대, 가전제품의 수출증대, 이동통신기기의 보급확산, CATV 방송의 출범 등에 따른 관련 부품의 수요증가로 하반기에도 작년 동기에 비해 약 2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과 내수의 증가와 함께 기업측의 반도체, LCD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생산도 작년 동기비 33.8%의 성장을 이룩할 전망이다.

따라서 금년 한해동안 국내 전자부품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산업부도 펜티엄급 PC, 윈도우 등 고성능 소프트웨어의 보급확대에 따른 수요증가로 하반기에도 반도체관련 수출은 40.0% 늘어날 것으로 보며, 연간 수출은 전년(1백30억달러)에 반해 50% 증가한 1백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일반기계>

하반기의 일반기계산업은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성장세가 이어져 높은 신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내수증가의 둔화로 성장율은 상반기보다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하반기의 생산증가율은 작년 동기비 28.5% 증가한 1백55억9백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 금년 전체로는 29.7% 증가한 2백95억 6천7백만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조원 규모의 외화표시 국산 기계구입자금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내수시장의 확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하반기중 일반기계산업의 수출은 상반기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져 작년 동기비 49% 늘어난 42억7천5백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하반기에도 동남아지역에서의 수요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산업부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일반기계계의 수출과 생산에 있어서 산업연구원측의 전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통상산업부의 자료에 의하면 <표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반기의 생산증가율을 18.0%로 예상한 1백83억5천1백만달러 증가하여 연간 생산액은 3백59억4천3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한편 수출에 있어서도 금액면에 있어서 산업연구원측의 전망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수 있다.

#### <철강>

하반기의 철강내수는 상반기와 거의 비슷한 1천7백만톤 수준을 보여 작년 동기비 7.5% 성장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전체로는 3천3백90만톤 수준을 보여 작년비 5.3%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 예상된다. 이는 작년의 증가율 20.6% 보다는 표면상 상당히 둔화된 것이긴 하나 작년의 경우 과잉재고 등으로 내수가 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

년 것으로 보고있다.

금년 하반기의 철강수출은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공급능력의 확충으로 수출여력이 다소 늘어나 작년 하반기 및 금년 상반기에 비해 각각 4.5%, 5.1% 증가한 5백 15만톤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이 산업연구원의 전망이다.

한편 통상산업부의 최근 자료에서도 철강내수는 자동차, 조선 등 관련 수요산업의 호황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하반기의 철강생산량은 1천8백65만8천톤의 증가를 예상하여 연간 전체적으로는 3천6백70만톤이 될 것으로 보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한 4백74만6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석유 화학>

통상산업부가 발표한 「최근의 산업동향과 하반기 전망」에 의하면 내수부문에 있어서 자동차, 전자 등 관련 수요산업의 호조와 가공업체의 재고부족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6%)보다 다소 높은 7.2%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의 경우도 석유화학수출의 주종인 합성수지의 대동남아시아에서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1백5십1만8천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연간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19.1% 증가한 2백9십8만4천톤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 <조선>

각 조선업체의 노사안정과 신규설비 가동으로 하반기 건조량은 20.7% 증가하고 수출도 건조량 증가에 힘입어 상반기보다 62% 증가한 31억달러에 이를 것이나 최근 엔화절하 추세가 지속된다면 조선수주에도 타격을 입게되어 당초의 낙관적인 예상과는 반대의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통상산업부측의 우려이다.

#### <섬유·의복>

금년 하반기 섬유류 수출은 작년 동기보다

2.2% 증가한 92억달러, 금년 총 섬유류 수출은 1백80억달러로 작년비 4%의 증가율을 산업연구원은 예상하고 있다.

또 하반기의 섬유류 수입은 작년 동기비 25.1% 증가한 35억달러로 금년 총 섬유류 수입은 작년비 24.4% 증가한 65억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섬유산업의 전반적인 무역수지는 1백 15억달러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섬업은 폴리에스텔 등 화섬직물의 수출증가와 원사류의 직수출 확대에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설비확장 등 활발한 설비투자에 힘입어 화섬생산도 크게 활기를 보일 것 같다. 면방업은 금년 하반기에도 면사류의 수출증가가 예상되나 국제원면 가격이 크게 올라 원면 구매에 따른 원가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직물업은 화섬직물의 수출증가로 호경기가 지속되겠지만 상반기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수는 하반기에 Casual Ware를 비롯해 신사·숙녀복 등 추동복 중심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산업부의 자료에 의하면 내수부문에 있어서 직물의 경기불황에 따른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섬유제품과 방적사 부문도 내수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4.3%의 낮은 증가세에 머무를 것으로 나타나 있다. 때문에 섬유·의복의 수출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는 매년동기대비 2.4%의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하여 섬유·의복의 연간 수출은 작년보다 7.1% 증가한 1백8십4억9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신발>

하반기에는 그간 업계에서 추진해온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어 생산은 1억1천만켈레

로 작년 동기비 6.8% 감소하고 연간 전체로는 7.8% 감소에 그쳐 작년 보다는 그 감소폭이 줄어들 것이라는게 산업연구원의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수출 또한 감소율이 낮아져 작년 동기비 13.6% 감소한 5천1백만켈레를 수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고유상표 제품의 꾸준한 수출확대와 주거러선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 중심의 OEM수출의 안정세, 후발 개도국 및 해외 진출업체로의 부분품 수출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수입은 1천2백만 켈레로 작년 동기비 50% 증가하여 여전히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통상산업부 자료에 의하면 신발내수는 고가의제브랜드의 선호 및 저가수입품의 국내시장장식으로 상반기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전망하고, 수출은 특수전문화와 고유상표제품의 수출증가로 감소폭이 상반기에 비해 다소 둔화된 16.6% 감소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四. 총체적 전망

산업연구원이 실물경제 최근호에서 밝힌 산업별 경기전망에 의하면 대부분의 업종이 하반기에도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등의 내수와 수출이 증가하고 가전 및 일반기계의 내수는 다소 정체될 것이나 수출증가율은 상반기 수준을 훨씬 웃돌 것이며, 섬유류와 신발류도 수출회복세가 이어지겠으나 생산은 여전히 한 자리 숫자의 증가에 그치거나, 오히려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올 하반기에도 중화학업종을 중심으로 높은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고 꾸준한 내수확대에 힘입어 국내 경제성장과 함께 경기확장국면이

금년 말에서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게 산업연구원의 전반적인 향후 경기전망이다. 한편 통상산업부의 최근 자료에도 하반기 산업 경기를 상반기와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중공업분야는 세계 수요의 견실한 증가세와 가격경쟁력 유지에 힘입어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반면 섬유, 의복, 신발 등 경공업 분야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최근의 시중금리및 추가하락과 함께 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수 있는 「달러고-엔저」현상 등을 우리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견디고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점이다.

더우기 엔화약세의 특징이 장기화되는 경우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등 일본과 경합상태에 있는 분야가 국내 주요산업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어 의외로 경기가 하강국면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일부 경제전문가의 조심스러운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늦추거나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그러한 우려를 뒷받침 하는 조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에서 산업별로 최근동향과 하반기 경기전망을 살펴 보았으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업종별 동향이나 전망이 각 산업별 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동일업종의 중소기업공장에서는 상당부분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 유의하여 각 업종별 중소기업이 해당 산업의 대표성을 갖도록 모든 정책과 지원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